

AGORA

IGSE Newsletter



다양성과 공통성



문 용 (총장)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고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을 알아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나라의 우수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학생을 뽑을 때, 우리 대학원은 학생들이 학부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학원이건 출판사이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영어와 관련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비(非)영문/영어교육과 출신들도 많다. 이들은 대다수가 영어나 영어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IGSE는 바로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개교 이래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IGSE에는 (영문과나 영어교육과 출신 말고도) 학부에서 영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부에서의 전공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두 명씩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역시 신기하다. 영어지도학과의 경우, 영어교수법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도 이들의 배경과 관계가 있을 법하다. 더군다나 학과의 특성상 영어교재개발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그야말로 다양각색이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영어에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의욕적이다.

다양성이라면-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 시대를 휩쓸었던 영어교수법은 Grammar-Translation Method나 Oral Approach 또는 Audio-lingual Method 등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어느 한 교수법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수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이론과 주장이 다양해진 것이다.

70년대 이후로 영어교수법의 이론과 주장이 다양해진 것은 한편으로는 영어교수법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응용언어학, 언어습득론, 심리학과 교육학이 외국어 교수법에 대해서 제각기 다양한 패러다임을 내놓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어 학습 인구의 팽창과 영어 학습의 목적과 동기 또는 필요성이 다양해진 데도 원인이 있다.

영어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제의 다양화 속에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그들의 다양한 시각은 그들이 공유하는 영어에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삼아, 지금 이 순간 우리 IGSE의 독특한 학풍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발행일 / 2005년 4월 30일
발행처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발행인 겸 편집장 / 문 용
편집 / 김영우
주소 / 134-847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9-11
홈페이지 / www.igse.ac.kr
전화 / 02-6477-5114
이메일 / webmaster@igse.ac.kr
디자인 / 영에드(02-719-4544)

CONTENTS

■ 특집 : 해외 전공 연수

2005년도 영어지도학과 해외 전공 연수 / 이세형 · 권용성
2005년도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 전공 연수 / 양나나

■ 명사 칼럼

한국에서 영어 열기, 그 허와 실 / 김성곤

■ Faculty Column

봄 학기 첫 주 신문에 실린 영어교육 기사 및 광고 / 김영우
A Journey Shared / Alannah Fitzgerald

■ We're IGSEan

대학교 강단에 서서 / 권소희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easeless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 Mi Jeong Lee
경기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다녀와서 / 박경임

■ IGSE Library

IGSE 도서관 사이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IGSE TTI

앞서가는 영어교육, TTI에서 시작됩니다

■ Book Review

『영한사전 비판』 / 정영국

■ Focus : IGSE 강좌 소개

Production of Instructional Television and Video Materials / Namjoon Kang

■ News & Events

■ IGSE FAQ - 입학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 2005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이세형 · 권용성 (영어지도학과 2기)

2005년도 영어지도학과 해외 전공 연수

2월 2일(수)

인천공항에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다.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탄 끝에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 연수 기간 동안 묵게 될 파고다 호텔에 도착하자, CAPE Program을 총괄하시는 유재호 박사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연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셨다.

2월 3일(목)

다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와이 대학교 강의실에 나란히 앉으니, 미국 대학에서의 수업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뭉 정도였다. 첫 수업으로 언어습득을 주제로 한 Schmidt 교수님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Schmidt 교수님은 전공 연수 기간 동안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 습득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셔서 그 동안 IGSE에서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듯한 느낌이였다.

수업 첫날이라 그런지 다소 피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움은 우리들 모두의 피로를 날려주기에 충분했다. 와이키키 해변의 저녁 노을은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지.

2월 4일(금)

IGSE에서 만났던 Chaudron 교수님을 하와이 대학에서 반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주제는 “Research on Teaching”이었는데, 연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한 강의였다. 수업의 후반부를 맡아 주신 Schmidt 교수님께서 자신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언어학의 주요 분야인 발화 과정(production process)을 쉽게 설명해 주셨다.

Dept. of Second
Language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2월 7일 Crookes 교수 강연



2월 5일 Sea Life Park 방문

2월 5일(토) ~ 6일(일)

하와이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다. 하와이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아침 일찍 서둘러 Sea Life Park와 Hanauma Bay, 두 곳을 방문했다. 역시 하와이의 해변은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웠다.

2월 7일(월)

Yoshimi 교수님은 “Teaching Causal Conversation”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2시간만 할애된 수업이라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한 강의로 기억한다. 교수님은 담화(discourse)를 분류하며 담화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와이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신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담화를 배울 때는 목표언어의 문화까지도 고려해서 학습자들에게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Crookes 교수님은 “Critical Applied Linguistics”라는 주제를 통하여, 교사 스스로가 연구자가 되어야 하며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교수 활동을 평가해야 함을 주지시켜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고 교사들이 힘을 합쳐야 교육을 조금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가능함을 주지시켜 주셨다.

2월 8일(화)

Schmidt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주제는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이었다. 수업 후, Ward Center에 가서 하와이 원주민들의 유물을 구경하고, 하와이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2월 9일 하와이 총 강습



2월 10일 Lunalilo 초등학교 방문

2월 9일(수)

Schmidt 교수님으로부터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문용 총장님이 아고라에 게재하셨던 “영어의 여러 얼굴”이라는 글이 생각났다. 우리는 교사로서 과연 어떤 모습의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걸까?

2월 10일(목)

이 날은 특별히 Lunalilo Elementary School을 방문하였는데 하와이에서 세계 각국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지를 견학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영어 담당 선생님들이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교실에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2월 11일(금) ~ 13일(일)

평소 나 자신이 Day 교수님의 주 연구 분야인 다독(extensive reading)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Extensive Reading in the EFL Classroom”을 주제로 한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 방식 역시 나를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수업 내내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교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Day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흥미로운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언어입력(authentic input)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일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학습자료의 진정성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어떤 자료가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아주 뜻 깊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날도 어김없이 방과 후, 문화체험을 위해 Bishop Museum을 방문하여 미술 작품들과 각종 예술품을 관람하였다. 다음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와이 문화와 자연 풍경을 마음껏 즐겨보았다.

2월 14일(월)

Chaudron 교수님은 지난 해 우리 학교를 다녀가셔서 그런지 이 날 강의 주제도 우리들에게 와 닿을 만한 것들로 선정하셨다. 교실 연구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실 밖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어 습득과정에서 교실 안의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2월 16일 연수기념 촬영

2월 15일(화)

언어 형식에 초점 맞추기(focus on form)에 관한 Chaudron 교수님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언어 형식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구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Schmidt 교수님께서 동기(motivation)란 주제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맛깔 나는 강의를 해주셨다

2월 16일(수)

오늘은 해외 전공 연수 마지막 날이다. Schmidt 교수님은 동기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 하시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유재호 박사님으로부터 수료증을 전달받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외 전공 연수를 마무리하였다.

2월 17일(목)

이번 해외 전공 연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습득과 영어교육에 대한 갖가지 생각과 믿음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하와이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 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아직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와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 보낸 시간들, 와이키키 해변의 일몰, 에메랄드처럼 맑았던 알라 모아나 해변의 바닷물 그리고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바라 본 오후의 섬의 아름다운 전경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2월 12일 폴리네시아 센터 관람



양나나 (영어교재개발학과 2기)

2005년도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 전공 연수

2005학년도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 전공 연수는 2005년 1월 10일부터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LMU)에서 열린 2주간의 영어교재 개발을 위한 단기 연수와 1주간의 저명 출판사 방문으로 총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의 지도교수인 정영국 교수와 15명의 학생들은 1월 8일에 영국 Leeds에 도착하여 민박집에 머물면서 연수를 시작하였다. LMU 연수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수업은 점심 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첫 주는 Issues in Materials Development, Materials for Teaching Language, Materials Adaptation, Using a Flexible Framework for Writing Materials란 주제로 수업이 있었다.

1월 10일(월)

Masuhara 교수님과 Timmis 교수님이 함께 진행한 수업으로 교재개발과 관련하여 시연(demonstration), 토론(discussion), 개발(development)의 3D Discovery 과정에 대한 수업이었다. 드라마, 요리,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요가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영어 학습이 결합하여 심적 관련성(mental connection)을 활성화시켜 주는 수업이었다.

1월 11일(화)

Timmis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텍스트를 먼저 선정하고, 이 텍스트에서 가르칠 항목을 선별하는 텍스트 기반 접근법(text-based approach)에 대한 정의, 언어 항목 선정 기준, 선정한 언어 항목을 위한 교수 방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다. 그 후, 강의 내용을 토대로 각 조별로 배부 받은 교재의 언어 항목에 대한 과업(task)을 분석하고, 각종 언어 항목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과업들을 개발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School of Languages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1월 10일 LMU 등교



1월 14일 하퍼 콜린즈 견학



1월 24일 옥스포드대학 방문

1월 12일(수)

Masuhara 교수님의 교재 개작(materials adaptation)에 관한 수업으로, 우리가 '보투와나' 라는 나라의 상급 학습자나 교사들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문화적인 측면, 학습자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재 내용이나 교수 방법을 수정하는 개작을 해보고, 개작의 원칙, 목적, 방법, 기술,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다.

1월 13일(목)

오전에는 Tomlinson 교수님의 인간 중심 접근법(humanistic approach)의 중요성을 토대로 한, "Using a Flexible Framework for Writing Materials"란 제목의 강의를 있었는데, Tomlinson 교수님은 교재가 정서적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immis 교수님의 오후 수업은 "Editing and Monitoring Materials"에 관한 것으로 교재의 편집과 의견 수렴시 주의해야 할 요소와 기준을 살펴보고, 그룹별로 주어진 샘플을 재편집해서 발표하였다. 편집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으나 시간적인 제한, 컴퓨터 사용 여건 등으로 샘플 교재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구성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1월 14일(금) ~ 16일(일)

글라스고에 있는 하퍼 콜린즈 본사와 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하퍼 콜린즈에 도착하니 작년에 본교에서 초청강연을 해주신 Alison Macaulay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사전 편찬부에서 사전의 어휘 선별과 업데이트 방법, 영일사전 및 자사에서 개발한 유럽 여러 나라의 사전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다. 편집팀에서는 교재 디자인, 표지 제작, Quark 소프트웨어 작업, 필름 작업 및 제본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단계별 샘플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강의 후에는 유럽에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도서 물류 센터를 둘러 보았는데 놀라울 정도의 규모와 신속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두 번째 주는 “Materials for Teaching Language Skills”, “Materials Evaluation”, 교재 제작 시 고려해야 할 “Illustrations, Layout and Design, Instructions”에 관한 강의와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교재 제작 실습과 발표 및 이에 대한 논평이 있었다.

1월 17일(월)

Masuhara 교수님의 수업은 “Materials for Teaching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Skills”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교재는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월 18일(화)

Tomlinson 교수님의 교재 평가에 대한 정의와 종류, 평가 기준 등 교재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별로 개발된 영어 교재들을 평가해 보았다.

1월 19일(수)

Barnes 교수님의 “Illustrations, Layout & Design in Language Teaching Materials”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많은 부분이 IGSE에서 두 번째 학기에 수강한 “전산 편집과 그래픽”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였다.

1월 20일(목)

Masuhara 교수님과 Barnes 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음날 발표할 교재를 그룹별로 제작하였다. 두 교수님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이상적인 교재’를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1월 21일(금) ~ 23(일)

총 여섯 팀의 작품 발표와 이에 대한 교수님들의 논평이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한 작품이었지만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교수님들의 피드백도 유용하고 매우 실용적인 것이었다. 마지막 강의 후에는 학교 근처의 펍(pub)에서 모두 함께 맥주 한 잔 하는 것으로 리즈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은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 스트라트포드 어펀 에이번, 23일은 웨일즈에 있는 헤이 온 와이 고서점 마을을 둘러보았다.



1월 11일 Timmis 교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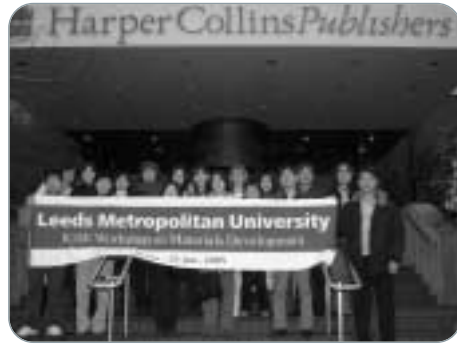
1월 21일 작품 발표 및 논평



1월 24일 옥스포드 출판사 견학



1월 25일 롱맨 출판사 견학



1월 26일 하퍼 콜린즈 출판사 견학

1월 24일(월)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 방문에서는 출판부 역사관, 사전 개발에서 코퍼스 활용과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의 편찬 과정 등에 대한 강의, 초급 단계 교재, 단계별 읽기 자료 (readers), 성인용 교재 등 ELT 교재의 개발 과정, 수준별 난이도 조정 작업, 디자인이 판매 부수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개발된 성인 회화 교재인 *New English File* 시리즈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옥스포드 사전의 효과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인의 사전 사용 경향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마련한 전문 투어 가이드의 설명이 곁들여진 옥스포드 대학 및 시내 관광을 하였다.

1월 25일(화)

롱맨 출판사 방문은 본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던 Della Summers씨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multimedia manager, managing editor, senior lexicographer 등 다양한 직책과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코퍼스 구축, 사전 편찬 프로그램, 최근에 개정된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연령별 ESL 교재의 교정 및 시용(piloting)과 같은 제작 과정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1월 26일(수)

하퍼 콜린즈 출판사의 마케팅 본부에서는 유명 연예인들과 최신 유행어를 이용한 공격적이고 참신한 홍보전략에 대해 들어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해외 판매 실적, 수준별 가정 학습(home learning) 교재 내용과 사용 현황,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이상과 같은 공식 연수 일정을 마친 뒤, 27일과 28일은 런던에서 각자 자유로운 일정을 보내고, 29일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여 암스테르담에서 하루를 보냄으로써, 3주간의 해외 전공 연수를 보람차게 마치고 1월 30일에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연수는 IGSE에서 3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리,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환대를 해준 세계 굴지의 출판사들인 하퍼 콜린즈,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롱맨의 방문은 IGSE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을 것이다. 이 출판사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복지 시설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며, 한국의 출판 환경 및 근무 환경도 앞으로 이런 수준으로 향상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에서 영어 열기, 그 허와 실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원어민이면 누구나 영어강사로 취직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돈을 벌며 본국의 법대나 의대에 진학하거나, 동남아로 놀러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TOEFL 점수는 여전히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TOEIC에 만점을 맞았다는 사람도 영어는 한 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에서 만난 영국군 출신의 어느 자바인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들에게, “한국인은 영어를 못하는데 너희는 잘 하네”라고 말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한국인의 짧은 영어 실력은 그만큼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경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한국인들은 영어에 서투른 것일까? 우선 한국인들은—일본인들도 그렇지만—만일 틀리면 어쩌나 하는 자의식이 강해서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인들은 국민성이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별 심리적 부담 없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영어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가 어순이나 구문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중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영어를 쉽게 배운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영어 문법만 가득 들어 있어서, 문법이 틀리지 않나 늘 우려하다 보면

도대체 유창한 영어가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문법이라는 것은 부단히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 전에 죽은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의 문법책에는 ‘Of course not’이라는 대답은 부정문으로 물어보았을 때에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영화를 보면, “Do you have two husbands?” 같은 긍정문 질문에 어김없이 “Of course not.”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한국인들이 영어에 자신이 없는 또 하나의 경우는 한국인들의 영어를 원어민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거의 모든 단어에 있는 강세(stress)와, 문장 속에서 강하게 발음해야 하는 특정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는 강세로 이루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제 자리에 강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컨대 다음 예문의 경우에는 굵게 표시된 곳을 강하게 발음해주어야 한다.

You can say **that** again.

Now you're talking.

Not that I **know** of.

It's easy for **you** to say.

That's what **you** think.

객원교수로 미국에 갔을 때, 영어발음이 안 되어 햄버거를 사먹지 못하는 의대 교수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햄버그’라고 발음했기 때문이었다. ‘햄’은 가공 돼지고기이고 ‘버그’는 벌레이기 때문에 주문받는 아가씨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다. 또 어느 국문과 교수는 ‘커피’를 주문했는데, 주문받는 아가씨가 ‘카피’로 잘못 알아듣고 사무실 복사기



김성곤 (서울대 언어교육원장, 영문과 교수)

로 데리고 간 적도 있었다. 한국인들은 “This is ...”를 “디저 이지”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원어민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억양에 영어만 얹어놓은 한국식 영어나 한국식 표현도 원어민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순간, 그 외국어 문화로의 심리적 전이(psychological shift)가 빨리 이루어진다. 즉 영어를 말하는 순간, 화자의 심리가 영어 원어민의 그것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심리적 전이의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는 것이다. 언어에 센스가 있다는 것은 곧 그 변화와 전환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단어만 사용했을 뿐, 한국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한국식 영어가 되기 쉽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영어회화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수능시험에 영어 말하기를 집어넣고 배점을 크게 늘리며, 대학 면접을 영어로만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삽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어머니들이 영어회화 학원에 다녀 영어를 마스터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줄 것이며, 수험생들 역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영어 말하기의 달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현재의 수능시험 제도가 계속되는 한, 한국인들은 결코 영어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만점을 받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현재 영어회화는 고사하고 전공과목 원서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 수능시험의 듣기평가가

너무 쉽고, 시험문제 역시 영어실력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 감점을 받게 하도록 고안된 함정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학입시 같은 강력한 동기유발이 불가능하다면,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영화를 좋아한다면 스크린영어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만화를 좋아한다면 영어만화를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래를 좋아한다면 팝송 가사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게임이나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면 영어캠프(immersion program)에 참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내가 잠시 체류했던 미국 브리검 영 대학에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100여개의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3개월 동안의 집중 학습 훈련과정을 마치면 모두들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 경우에는 강한 동기유발과 재미가 동시에 작용해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었다.

한국인들도 물론 영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세계인이 되어 영미문화를 받아들이고 영미인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만 한다. 문화적 이해가 수반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어는 더 이상 영미의 언어가 아닌 국제어가 되었다. 영어가 국력이 되고, 국제경쟁력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김영우(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

FACULTY COLUMN

‘여전히 중요한’ 교육 및 경제 기사

2005년 3월 첫 주의 신문은 2월 28일 월요일에 있었던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 발표와 관련된 교육 기사로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 내용을 주요 기사로 게재하였고, 일부 신문(서울신문, 세계일보)에서는 사설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다. 그리고 2월 28일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하면서 몇 달간 유학, 송금비가 51% 늘어나 10억불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신문에서 실고 있었다. 이런 기사는, 유학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는 점을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과 관련성이 높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교육비 격차가 6배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신문이 있었다.

영어교육 기사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3월 3일에 있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식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입학식 이전인 3월 1일자에 입학식 예정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입학식 당일(3일)뿐만 아니라 다음날(4일)에는 여러 신문에 입학식 사진과 함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이 입학식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아 “한국말은 NO”, 입학식 영어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고(한국일보), 의상디자인이 앙드레김씨가 무료로 디자인한 교복을 학생들이 입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그 외 문화일보가 충남 아산시가 해당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 선문대와 협력하여 영어 원어민 교수가 지역 학생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단신을 다루고 있었고, 한국일보는 성남시가 ‘e-푸른 성남 영어마을’ 조성 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마을 대상지로 분당 새마을 연수원을 정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런 기사는 경기 영어마을 안산캠프에서부터 시작한 영어마을 열풍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편이다. 비슷한 경우로 3월 둘째 주 신문에서는 단신으로 서울영어체험마을의 주말캠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영어 교육 광고

영어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기사에 비해 학원, 책 등과 같은 교육 관련 광고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었다. 조사한 8개 신문(아래 신문 목록 중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제외,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된 신문을 대상으로 했음)에 한 주 동안에 교육 관련 광고로 100여개 이상이 실렸다. 이와 같은 광고량은 전체 광고에서 꽤 높은 비중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일보, 뉴욕타임즈, 요미우리신문의 1주일치를 여러 항목에 걸쳐 비교 분석한 박재영(2004)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박재영(2004)의 ‘3개 신문의 광

봄학기 첫 주 신문에 실린 영어교육 기사 및 광고

고 업종의 수'에 대한 비교에서, 학원 업종의 경우 조선/뉴욕타임즈/요미우리가 각각 60개/12개/99개이었고, 광고 면적 비율에 있어서는 10.6%/1.0%/7.8%이었다. 학원 업종 외에 학교 그리고 출판잡지 업종에서도 조선일보의 광고 수량이 많고,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광고 중에서 영어교육 광고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한 8개 신문(일부 신문의 경우 2월 28일 월요일자 조사 못함)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원 광고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어와 관련된 광고가 14개가 실렸다. 유형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표 :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영어교육 관련 광고
(200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영어교육 광고 유형	수량
출판 및 교육 서비스	8
학원	3
방송	2
기타	1

출판사의 경우 특정 교재를 중심으로 광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출판사인 경우에는 브랜드 및 이미지 광고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학원이나 방송의 경우에는 영어교육 관련 특정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한국TOEIC위원회도 영어말하기 시험을 광고하고 있었다.

영어학습을 위한 신문 섹션

신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신문 특정 섹션에 영어학습을 위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한 10개 주요 일간신문 중에서 8개 신문에 아래와 같은 영어교육 학습물이 있었다.

- 경향신문: 스티븐 리비어의 깎두기 English
- 국민일보: 외국어 한마디
- 동아일보: YBM 생활영어
- 문화일보: 연호택의 開口잉글리시
- 서울신문: 없음
- 세계일보: 당근! 생활영어 / 척척 TOEIC 강좌
- 조선일보: 톡톡튀는 생활영어
- 중앙일보: 카플란의 비즈니스 잉글리시
- 한겨레신문: 없음
- 한국일보: English-to-go / 임귀열의 현지영어 정통영어

이와 같은 학습물 외에 교육 섹션이 있는 날짜의 신문에는 영어학습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Korea Herald, Herald Tribune과 같은 영자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에 영어학습과 관련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신문의 학습 기능은 신문활용교육(NIE)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신문의 학습물은 신문사 자체 또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간접 광고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일보, 세계일보에 실리는 학습물의 경우에는 하단에 해당 기관의 로고까지 게재되고 있기도 했다. 신문사들 스스로도 이런 학습물을 통해 광고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社告'의 형태로 영어학습물이 새로 게재되기 시작했거나 개편되었다는 내용을 신고 있기도 했다.

영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의사소통 통로로서의 신문

김영우와 김주혜(2002)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 인터넷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전통적인 매체에서 신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나타난 한 주간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영어교육 관련 기사 분량이 적었다. 기사의 경우에는 시기적인 특성과 의상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교복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다뤄진 한 외고 영어 입학식과 두 지역의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다. 이와 같은 기사가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영어교육 광고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신문 전면 광고 3개를 포함하여 10여개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 이런 광고들은 그 분량으로 볼 때, 광고 효과 외에 일정 정도 정보 전달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문의 영어 학습 섹션도 직접적인 학습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문이 영어교육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신문에 실린 영어교육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문에 게재된 영어교육 관련 기사와 광고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내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우, 김주혜. (2002). 영어학습정보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태도 및 행동 사례 연구. *외국어교육*, 9(4), 281-298.
박재영. (2004). *신문 지면의 구성 요소*. 서울: 미디어연구소.



Alannah Fitzgerald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FACULTY COLUMN

Having taught at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for two years I am now about to embark on a Ph.D. course in educational technology at the University of Concordia, Montreal, Canada.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students of IGSE and our shared pursuits as graduate students.

As graduate students, we often get so absorbed in our research and the activities of our own departments that the issues of the wider world take a back seat in our daily lives. But these issues can be the real glue in soci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community. Politics, international commerce, spirituality, arts and entertainment inevitably find their way into influencing our unique perspective as graduate students, whether in our work, our friendships with other students, or the roles we play in the community. Personally, I am a bit of an information junkie - the more, the better, despite how overwhelming it can be - and it all seems to affect my work and my outlook on life in general.

Information can provide comfort and act as armour when you find yourself in a new place, whether it is a new city, a new school or a new job. But the amount of information we are surrounded by, useful or not, can be vast. Graduate school teaches you not only how to research your particular subject but how to sift through all the information on it to find what you really need. If that is not an invaluable life skill, I do not know what is.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 trying to convey my conception of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I would say in very broad strokes that there is one constant now and in the future: we will be required to communicate effectively, regardless of the medium employed. Furthermore, with future advancement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safe to say that we will be increasingly required to understand each other in different ways. This evolving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y is creating changes in communication is what I perceive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as doing by way of tracking and mapping out these changes for our grea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 Journey Share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CT

A key area of research that I am interested in exploring at the next stage in my academic career is general approaches to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n three particularly significant area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ICT:

- knowledge circulation and knowledge construction
- reflective practice
- recognition of context and self efficacy

As a premise to this investigation of design consideration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t is vital to bear in mind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re still relatively new. Information and data proliferates, both on- and off-line, about network-based learning and training opportunities. It has been little over a decade, however, and when we place findings from the growing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against a backdrop as large as the entire history of education, we begin to realise that we are still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breakthrough era in instructional design. As it stands, key developments in our shared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s media in education are still yet to emerge, and of course technology is constantly moving on.

Experience is considered significant in our professional lives, and in our reflective practice of what we perform at work and on the knowledge base we develop over the course of our working lives. Both 'received knowledge' and 'experiential knowledge' have roles to play and indeed the one helps to interpret the other. The former accounts for learning of the particular jargon of a field and the corresponding ideas, concepts, skills, research findings, which are commonly received as making up the crucial intellectual content of a given field.

Education, it would seem, is on an apparently unstoppable technology route, and this is evidenced not only in schools from the public sector, but more so in well-funded business training initiatives and in higher education. It stands to reason, therefore, tha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orking with

educational technology are in a better place to observe, reflect, report on, and share their experiences of ICT.

A significant part of reflective practice is knowledge in action. Reflective practice is not only premised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ut it is argued that it is fundamental to preparing professionals for the unpredictable nature of workplaces. Self-efficacy refers to the attitudes towards using innovations, for example computers for online conferencing, as judged by individuals. Such attitudes and judgments are often determined by the authority context has to either support or deter a trainee's actions.

Compatibility is another important factor. A training course might in the short term help professionals to identify potentials for computer use but this may not be transferred into actual practice if self-efficacy is not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is may relate to skills and competences that individuals possess, and it may relate to human support as individuals explore an innov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great stress is now placed on the locus of control shifting from teacher to student in technology-oriented learning environments. With 'difficult groups', this is a key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specifically in the realities of school and professional life, and such issues I feel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by existing research into motivation and computers.



권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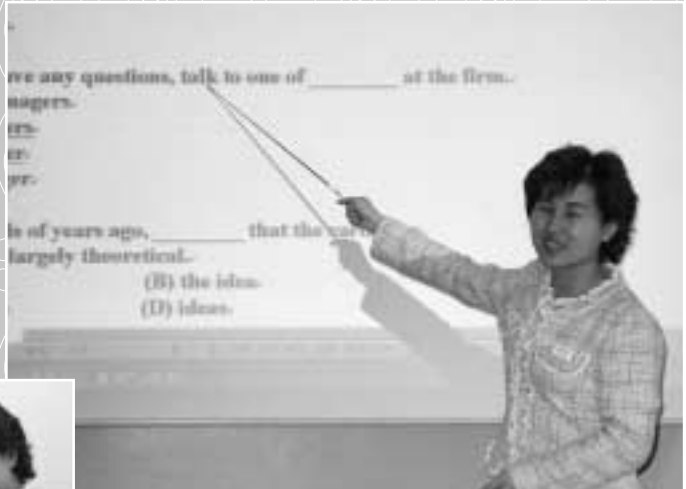
(건양대학교 강사, 영어지도학과 1기)

대학교 강단에 서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2년간의 주말 부부 생활을 접고, 다시 말해 730일간의 외롭고 힘들었던 고시원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인 대전에 돌아왔다. 정확히 말해 고향인 대전 시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계룡시라는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우연인 듯, 운명인 듯 계룡시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에서 올 3월부터 강의를 맡아 토익을 지도하게 되었다. 건양대학교는 “정보기술 활용능력 함양, 봉사하는 생활습관 함양, 실용 직무 능력 함양, 외국어 활용능력 함양”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전교생의 외국어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익 과목을 1학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서, 나는 그 중에서 오프라인 영역의 문법부분과 듣기 부분을 지도하고 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 고심한 후 문법을 지도할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되도록 쉽고 명료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비록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독해 위주로 학습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법을 지도할 때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은 대학원 시절 “교육영문법” 시간에 배웠듯이, 문법을 지도하는 방법에는 규칙을 통해 지도하기, 예문을 통해 지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듣기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99%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English Only for English Classes”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듣기 과목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영어



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학기초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일례로 몇몇 학생들의 반발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느린 수업 진행) 중국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대학원 시절 읽었던 논문들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또한, 2학년 2학기 교육실습(Practicum)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연습을 많이 한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당시 외국인 교수님께 교육실습을 지도 받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들과 입장이 달라서 교수법도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던 경험과 당시에 급우들과 서로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들이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 강단에 서서 나는 생각한다. 대학원에 가기를 잘 했구나. 특히,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대학원 시절 읽었던 전공 서적들과 논문들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할 때 나침반의 역할을 해 주어서 다행이다. 또한, 주당 10시간의 회화와 작문 시간을 가졌던 것 그리고, 여러 전공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받았던 것 등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니 수업도 더욱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동기들과 교수들님이 계시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다짐한다. 영어실력을 더욱 배양하자! 지도방법, 학습결과 등을 교육적 방향 제시까지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문으로 연결시키자!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easeless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here are tons of theories based not only on hands-on experiences but also on outstanding intuitions. In spite of my momentary experiences in a vast range of theories o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 daringly try to state so-called “My own theory of an effective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What I am sure of is that there have been and even will have been neither fixed nor unique answers for this issue because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s intrinsically a complicated and subtle matter involved with human beings’ internal and external mechanisms, which can be considered as environment in all. Therefore, in this essay, I will take a side of Interactionism and begin this discussion from considering the reason why I chose Interactionism as the best approach among three main branches (Behaviorism, Innatism, and Interactionism) and then I will distinguish some types of interaction, and finally, take a look at some necessary conditions for interaction.

I consider Interactionism as the best approach because it is made by integration of merits or supplementation of demerits in both extremes, Behaviorism and Innatism. As Brown (2000) has pointed out, behaviorism tends to focus on input, which can be specifically defined again by whether it is by conditioned or unconditioned stimuli. As a result, learning can be laid in a danger of mechanical or just one-sided tendency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a blind spot of Innatism is that by regarding Universal Grammar or Language Acquisition Device as human beings’ nature, in the end, learners can blame nature difference of individuals’ linguistic capacity or competence for their existing proficiency. Therefore, one of the merits of Interactionism can be expressed as the following: “I can see great advantage in widening the scope of interactionist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y adopting a pluralistic stance (Ellis, 1999).”

Firstly, let's have a look at what types of interaction promote L2 acquisition based on Ellis' theory. Ellis (1999) aptly captured two different but related meanings of 'interaction': First, interaction can be viewed as the social behavior that occurs when one person communicates with another. Interaction in this sense is interpersonal. Second, interaction can occur inside our minds, and interaction of this kind, then, is intrapersonal (Vygotsky, 1978). As a matter of fact, whenever the term, 'interaction' occurs to us, generally it is used to refer to the interpersonal activity that arises during face-to-face communication. However,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interac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regard to both our use and our acquisition of language. Not far from the above division by Ellis and Vygotsky, do I classify types of interaction, such as interaction with oneself, teachers, and peers. I focused on a various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environments rather than between learners and modified and fixed input. At first, good language learners should try to awaken to find out what ultimate goal of their



Mi Jeong Lee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 이 글은 필자가 2004년 가을 학기 영작문 시간에 쓴 것입니다. - 편집자

language learning is. And also, it is very dangerous for learners just to focus on micros such as vocabulary, grammar, etc. Through constant introspection, such as keeping a learning diary or log, learners can look at the learning procedure at the viewpoint of learners as well as of objective inspectors. Secondly, in terms of interaction with teachers, learners should not be regarded as passive ones but as main agents in the learning procedure. Interaction with peers is a very important element, as well. It is true that compared with learners' rather explicit interaction with teachers, interaction with peers might give learners implicit instruction or perceptions.

In the end, there are some necessary conditions for effective interaction. Above all,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not only in learning L2 but also in all types of learning. It is to say, "As a first step to learning, a learner must be aware of a need to learn." That is, how good and well-refined input we receive, it does make no difference unless the learner realizes or thinks about why he or she should learn it. In addition, my interaction theory is premised on human beings' limited memory capacity, competence, and will. L2 learners should not expect such a dangerous myth, in which once we studied or practiced L2 for a certain period, we would achieve a certain objective level of proficiency and at least keep our proficiency forever, just like learning how to swim or to ride a bike. At last, I assume that personality can play quite a big role in interaction; on the other hand, if someone consciously tries to be exposed to various social contacts, he or she can improve so-called innate linguistic competence. As a result, proper interaction itself can have a power to contradic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action and even make it possible to go beyond limitation of personality.

I believe that like human beings, language itself is inherently dynamic and interactive. I should say that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language. Only with constant and active interactions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linguistic features, we could approach more closely to what we call as L2 masters.

References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Longman.
Ellis, R. (1999).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경기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다녀와서

한국에서 교사로, 그것도 영어교사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0년 이상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영어교육 현실에 대한 비난의 한 가운데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를 위해 큰 돈 써가며 학원에 다니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연수의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로 경기도 안산에 영어캠프(안산 영어마을)가 문을 열었다. 이는 자녀의 영어교육에 열성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어교사인 나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경쟁률이 무척 높고, 실제 캠프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 정도가 캠프 재참가 의향을 나타내는 등 안산영어마을은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해 하던 참에 IGSE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안산영어마을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안산영어마을에 대해 내가 듣고 느낀 것을 적어 본다.



박경임 (영어지도학과 2기)

영어 친화 환경

대부도에 위치한 안산영어마을은 정문 자체가 'ENGLISH' 스펠링 모형을 하고 있다. 그곳을 지나면 새로운 영어 세상이 펼쳐진다.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했다는 이곳에는 방송실, 음악실, 공작실, 과학실, 요리실, 체육관 등 각각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실과 자신들의 영어사용 모습을 녹화해서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랩과 오픈 스튜디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상황별 생활영어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출입국 심사장, 은행, 우체국, 병원, 호텔, 잡화점, 의류대여상점 등의 시설들도 갖춰져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작은 '영어마을'인 셈이다. 또한 모든 안내 팻말들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교실과 복도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들이 빼곡이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꼭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면서, 자신의 교실을 찾아가면서,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영어에 노출된다. 게다가 이곳 저곳에서 만나는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까지. 안산영어마을은 정말 영어친화적인 환경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영어를 경험하자!

안산영어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규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영어회화 같은 영어과목을 배우지는 않는다. 이곳에서는 드라마, 음악, 미술, 과학 등 4가지 과목 중 관심 있는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영어로 배우는 몰입(immers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강당에서는 <백설공주> 연극 연습이, 과학실에서는 로봇 만들기가, 요리실에서는 요리 실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몰입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성취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영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습 내용을 영어로 체험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그리고 안산영어마을의 다양한 시설과 맞물려 활용될 수 있는 상황별 체험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 오는 모든 학생들은 첫날 '공항'에서 영어마을 전용 여권을 이용해 입국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곳에서 사용되는 EV 달러를 인출해 교재를 구입하고, 프론트에 가서 방 호수를 배정받는다. 이후에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간단한 진찰도 받고, 우체국에서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잡화점에서 필요한 물건도 산다. 특히 'Formal Dining Room'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어 원어민 선생님들의 실제 서빙을 받으며 식사예절을 배우는 기회도 갖는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영어를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안산 영어마을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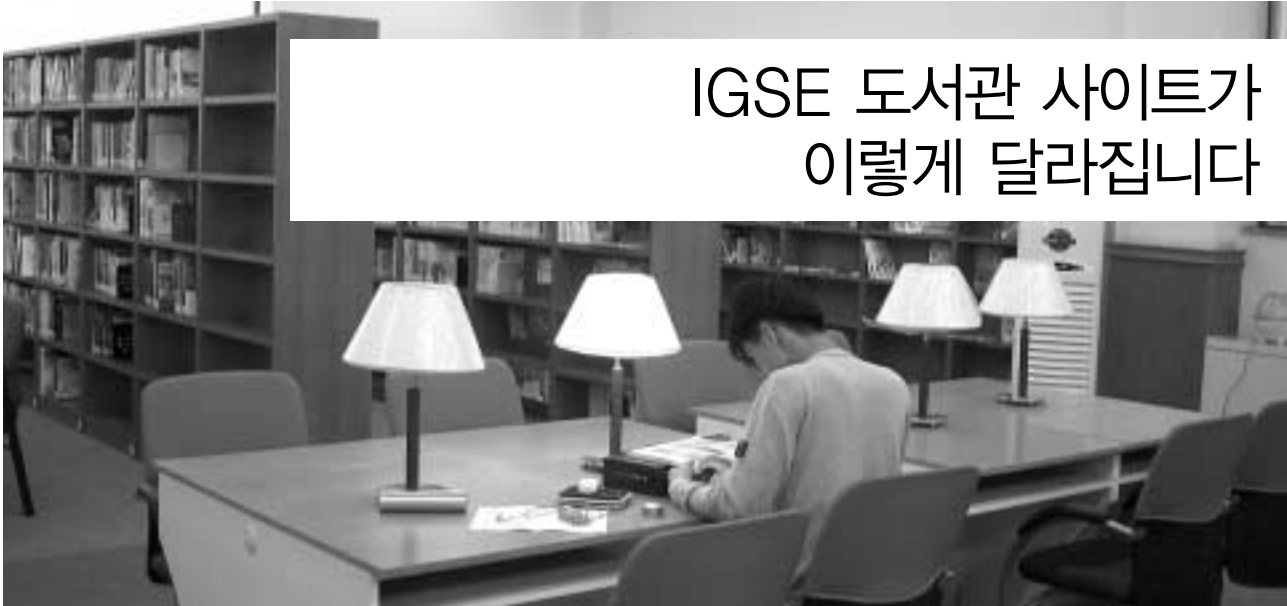
안산영어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끼리도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간히 학생들이 한국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안산영어마을의 당면 과제를 묻는 질문에 칼 더스트하이머(Carl Dusthimer) 교장 선생님은 영어마을 내에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영어를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원 당시에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EV 달러로 벌금을 내게 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벌칙조차 폐지했다는 그의 해결 방안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활동들로 수업을 운영하고, 발표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스티커를 준다. 이 스티커를 많이 모아 잡화점에 가면 개수에 따라 원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마을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마다 여권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나중에 도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상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에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어표현들을 제시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영어마을에서의 5박 6일 동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갑자기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학생들이 원어민 앞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아닐까? 참고로 경기영어마을에서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체득했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학습하도록 사이버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어마을에서의 5박 6일 동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갑자기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학생들이 원어민 앞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아닐까? 참고로 경기영어마을에서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체득했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학습하도록 사이버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IGSE 도서관 사이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내의 도서관 사이트가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IGSE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어교육 관련 도서 및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메인 페이지 개편



도서관 사이트의 얼굴인 메인 페이지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메뉴가 신설되었고, 영어교육 관련하여 자주 이용되는 타 기관 사이트 링크와 배너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료검색을 위해 방문한 이용자들을 위한 'Quick Search' 메뉴를 만들어 빠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도서관만이 서비스하고 있는 학위 및 연구논문 DB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료검색



- 자료 검색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메인 페이지의 단순 검색과 달리 여러 항목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착자료 검색 - 검색기간(15일전, 1개월전, 3개월전)별, 자료유형별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논문DB 검색 - 영어교육 석·박사 학위논문(1945년~현재의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6,200여편) 및 연구논문(1970년~현재까지 6,800여편)의 서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논문은 주제어 정보까지 제공되어 주제어 검색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자료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목록제공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멀티미디어 자료(DVD,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및 신착도서목록뿐만 아니라 본 도서관 소장 국내의 저널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관련 분야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T서비스



영어교육 분야에서 IT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본교 재학생을 위한 IT 기기 및 인터넷 이용 안내가 있으며 IT 관련 도서만을 쉽게 찾아 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IT 분야 도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추후에는 IT 관련 온라인 강좌 사이트를 개설하여 본교 재학생의 IT 능력 향상과 더불어 그 분야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IGSE 도서관 사이트는 www.igse.ac.kr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로 오셔서 도서관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IGSE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02-6476-5201~2, 이메일: library@igse.ac.kr)

앞서가는 영어 교육, TTI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주)현대영어사 소속이던 TTI(Teacher Training Institute International)가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6일에는 TTI의 개원식이 본 대학원 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와 TTI는 서울시 교육청 위탁 특수분야(영어) 교사 직무연수기관(2003학년도 우수교육기관 A등급)으로 지정을 받아 2004년 1월 이후 영어교사 연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두 교육기관이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앞장설 목적으로 창설되었던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그만큼 영어교육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 TTI는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TTI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 가산점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TTI 연혁

국제교사교육원 TTI는, 운선생영어교실로 잘 알려져 있는 (주)현대영어사가 영어교육 사업을 통해 얻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영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1만 3천여명의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교수법에 관한 최신의 이론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TTI가 이룩한 업적과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일 자	내 용
1997	1.8	TTI International 개원
	8.13 ~ 8.16	International Young & School Age Learners Conference 개최 (KOSETA 공동)
	8.19 ~ 8.22	창의력 신장 수준별 교수-학습 개선 교사 연수회 (서울 SETA 공동)
1998	1.20	미국 Brigham Young 대학 Eldredge 교수 초청 Phonics 특별 세미나
	7.20	중등교사 생활영어 연수 (서울 SETA 공동)
1999	6.1 ~ 6.17	중국 흑룡강성 영어교수 및 교사 연수
	6.23	미국 UCLA Ramirez 교수 초청 TEFL 세미나
	10.1 ~ 10.3	제2회 Pan Asia Conference 공동 주최 (일본 JALT, 태일란드 Thai-TESOL, 한국 KOTESOL 공동)
	11.15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
2000	3.6	소년한국일보 '신나는 영어교실' 게재 시작
	10.6	EBS 방송국 중등교사 및 학생을 위한 'Classroom English'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참여
	11.24	초등교사를 위한 Korea-Japan Joint Workshop (일본 MPI-SESETA 공동 주관)
2002	3.6 ~ 12.10	Yoon's BEFL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운영
2003	11.10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기관 지정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공동)
2004	4.7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우수기관 선정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공동)

◆ TTI 교수진

영어 교육학 또는 TESOL 석사학위 이상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TTI 교수진은 한국적 영어 교육 환경에 맞는 올바른 영어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5학년도에는 전임교수 5명, 외래교수 4명등 총 9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임미라: Teacher Training Specialist
- 학 력: TESOL 석사 (University of London, UK)
- 경 력: 영국 런던 한국학교 교사
서울 영림중, 강서중 교사



- 유수현: Teacher Training Specialist
- 학 력: TESOL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IL, USA)
- 경 력: ESL Instructor-Special English Clas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Adult Education, IL, USA)



- Thomas Lampi: Teacher Training Specialist
- 학 력: 교육학석사 졸업예정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교육학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Dip. TESOL (Vancouver Community College, Canada)
- 경 력: 경기도 경화여중 교사, ECC 강사



- 박은영: Teacher Training Specialist
- 학 력: TESOL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MI, USA)
- 경 력: ESL Instructor, Lansing Community College, YBM 시사영어사,
파고다어학원 강사



- 이수정: Teacher Training Specialist
- 학 력: 교육연극 석사 (New York University, NY, USA)
- 경 력: 뉴욕시 사립 유치원 Head Teacher
초등학교 After School 교사
뉴욕시 East River Theatre Company 배우, 스토리텔러
Multi language performance: "Patchwork" 공연

◆ TTI 프로그램

TTI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수법 강좌는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과정 또는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회화, 스크린 영어 등 언어개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2005학년도)

구 분	대상	과 정 명	교육시간	비 고
직무연수	초등	FTE: Fundamentals of TEF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64	교수법
		TBWE: Theme-Based Workshop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32	
	중등	FTE: Fundamentals of TEF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64	
		TBWS: Theme-Based Workshop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32	
	공통	SET: Screen English for Teachers	60	언어개발
	대학위탁연수	공통	PDC: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	90
자율연수	공통	LDC: Language Development Course	32	
온라인자율연수	초등	English in Action	3	교수법
	중등	Theme-Based Activities	12	
	공통	Creative Drama	12	

프로그램 운영 스케줄 (2005년 봄&여름학기)

일자	과정명	대상	시간	교육시간	교육인원	비고
4/6 - 5/24	LDC	공통	18:00 - 20:30	32	52	자율연수
4/18 - 5/11	FTE-I	중등	18:30 - 20:30	16	20	직무연수
4/19 - 5/17	FTE-I	초등	18:30 - 20:30	16	20	
5/30 - 7/13	LDC	공통	18:00 - 20:30	32	52	자율연수
5/30 - 6/27	FTE-II	중등	18:30 - 20:30	16	20	직무연수
5/31 - 6/23	FTE-II	초등	18:30 - 20:30	16	20	
7/19 - 7/22	TBWE-II	초등	13:00 - 17:00	16	46	직무연수
7/19 - 7/22	TBWS-II	중등	13:00 - 17:00	16	46	
7/25 - 8/12	PDCE	초등	09:30 - 16:30	90	36	대학위탁연수
8/8 - 8/22	SEE-I	초등	09:30 - 12:30	30	36	직무연수
8/16 - 8/19	FTE-IV	초등	13:00 - 17:00	16	46	
8/16 - 8/19	FTE-IV	중등	13:00 - 17:00	16	46	

◆ 앞으로의 계획

TTI는 2005년 하반기에 원격 영어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기획,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영어 발음의 집중적 훈련과 교정 과정
- (2) 고급 영어 인력의 훈련
- (3) 영어교육 관련 교재의 출판 등

『영한사전 비판』

(이재호 지음, 2005, 궁리)



정영국 (영어교재개발학과 학과장)

우리 나라 영한사전은, 조금 과장하자면 영한사전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불평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의 공론화는 주로 단편적인 글이나 언론의 일회성 기사로 잠깐씩 제기되다가 말뿐 체계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어지는 법은 거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영한사전은 묵은 문제들은 대부분 그대로인 채 갈수록 배만 불러지고 치장만 화려해졌다. 이런 실정에서 이재호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쓴 「영한사전 비판 (이하 '비판」)은 귀한 저작이 아닐 수 없다. 7개 사전에서 발견한 오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영한사전의 슬픈 현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일반 '콘사이즈' 크기의 영한사전을 이용하면서 발견한 오류들을 12가지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들은 요약하면 1. 순 우리말 제시 부족, 2. 실제로 쓰이는 역어(譯語) 누락, 3. 장황한 설명식 역어 제시, 4. 한글 역어에 대한 한자 병기 미비, 5. 역어 제시 우선 순위 부적절, 6. 중요 표제어 누락, 7. 내용상 오류 및 오타자, 8. 어원 수록 미비, 9. 일본식 역어 제시, 10. 불필요한 어구 사용, 11.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표기상의 혼란, 12. 새로운 국제 음성 기호 도입의 필요성이다. 이 중 2, 5, 6, 7, 9, 10, 12는, 비록 구체적인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이견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그 외 비판 항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완벽한 사전이란 게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전이라고 해도 모든 사용자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20권으로 이뤄져 세계 최대 영어 사전으로 일컬어지는 *Oxford English Dictionary*(OED) 같은 대사전이 아닌 바에야, 한 권의 사전이 모든 남녀노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휘와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사전에서는 이런 제약이 거의 없지만, 전통적인 책 형태의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정확한 정보 제시를 위한 고투 못지 않게 한정된 지면 속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공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전 비판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사전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사전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다.

「비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7종의 '콘사이즈'형 영한사전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중학생부터 고교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가정의 연장자에 이르기까지'(시사 엘리트, 3쪽),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두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으로 편찬된 것들이다. 사전이 사용자의 목적에 철저히 부합할 수 없으려면 목표 사용자층을 가능한 한 좁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일반 영한사전은 그 대상층이 너무 넓다. 물론 주로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긴 하겠지만 실정이 이렇다보니, 중·고등학생들로부터는 불필요하게 어려운 영어 단어들 너무 많이 실려 있다는 불평을 듣고,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나 번역가들로부터는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다는 비난을 산다. 영한

사전이 범국민적인(?) 불만의 대상이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전 편찬자들의 이런 무리한 대상 선정 때문이라고 본다.

어쨌든 비판 대상이 된 현행 영한사전들의 특징이 이러하므로 이런 사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 특징을 염두에 두고 해야 현실성이 있다. 그런데 「비판」에서 저자는 전문 번역가나 전문 분야 종사자의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일반 영한사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문제 제기 와 대안에서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저자는 영한사전이 가능한 한 많은 순 우리말을 찾아서 수록함으로써 우리말의 표현 능력과 영역 확장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요구를 ‘콘사이스’ 정도의 영한사전에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반 영한사전의 기본 목표는 영어 표제어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에 가장 알맞은 한글 역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비슷한 뜻을 갖는 역어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도 수용하기 힘들 뿐더러 사용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이중언어사전(bilingual dictionary) 사용자들은 한 표제어의 뜻으로 여러 개가 제시되어 있어도 첫 한 두 개 역어만 읽어보지 그 이상은 안 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비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번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번역 전문 영한대사전 같은 사전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예컨대 chain-smoker에 ‘용고투리’를, camel에 ‘약대’를, olive에 ‘감람나무’를, son에 ‘영식(歿息)’을 역어로 추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낱말들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뜻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을 것

이므로, 이런 역어를 발견한 사용자는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국어사전을 뒤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October 같은 달 이름이나 숫자에 ‘시월’ 같은 우리말 역어가 없고, sleep에는 ‘주무시다’가, eat에는 ‘잡수시다, 드시다’가, age에는 ‘춘추, 연세’ 같은 역어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영한사전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국어 지식을 활용해서 문맥에 따라, 예컨대 sleep을 ‘잔다’가 아닌 ‘주무시다’로 옮길 수 있으리라고 상정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에서는 여러 전문 분야의 용어들에 대한 분석 사례를 소개하면서 ‘용어 및 학술 용어 분야의 어휘들이 제대로 사전에 실리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109쪽)라고 주장하는데, 탁상용 사전 크기의 일반 영한사전에다 백과사전이나 각 분야의 전문 용어사전에서나 다루야 할 내용을 다 다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판」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한자 병기나 어원 명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재호 지음, 2005, 궁리

장황한 설명식 역어 제시라는 문제는 이중언어사전 편찬에서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특정 언어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화 관련어를 다룰 때 특히 문제가 된다. 예컨대 영어권에는 있는 단어인데 한국어에는 그에 대응하는 낱말이 없을 때, 또는 한국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그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때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에서 그 역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행 영한사전에서 설명식 역어 제시와 관련된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분명히 해당 영어 표제어에 상응하는 한국어가 존재하는데도 그 역어를 주지 않거나 그 역어와 더불어 불필요하게 영

어 단어의 뜻을 길게 설명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exorcist의 역어로 '퇴마사'를 주지 않고(139쪽)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적절한 역어를 찾아 그 역어만 제시하는 것으로 원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영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한글 단어가 없는 경우이다. 이중언어사전에서 표제어에 대응하는 역어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그 단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방법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수많은 외래어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단어들이다.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정의문을 간략히 줄여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비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bireme의 역어 자리에 '양현에 노가 상하 두 줄로 있는 고대의 갤리(galley)선(船)'(시사 엘리트 2003년판)과 같이 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원래 정의문을 어떻게 압축해야 표제어의 의미도 보여주면서 역어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bireme에 대해 엘리트 사전이 제시한 것은 역어라기보다는 그 단어의 영어 정의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에 가깝다. 이런 방식은 해당 단어의 뜻을 보여주는 데는 가장 좋을지 모르지만 목표어 문장 속에 대체할 수 있는 역어 제시를 기본으로 삼는 이중언어사전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너무 안이한 처리 방식이다. 「비판」의 저자는 bireme의 역어를 '2단노군함' (230쪽)이라고 간단히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역어는 사전 사용자에게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단노'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군함'만으로는 bireme이 현대전에서도 사용되는 군함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어가 없는 표제어를 처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표제어에 해당하는 역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컨대 ice cream을 북한에서 '얼음 보숭이'라고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는 존재하지만 한글에는 그 대응어가 없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물론 그 역(逆)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어휘들뿐 아니라, 정신없이 변화, 발달해 가

는 현대 기술 문명 속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신조어들이 영어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영한사전에 실는 문제가 사전 편찬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난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어휘에 대한 역어 찾기는 사실 단일 출판사나 사전 편찬자에게 기댈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 않는 한 동일 영어 단어에 대해 사전마다 처리 방법이나 제시하는 역어가 달라지는 문제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국가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상근직으로 고용하거나 자문으로 활용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이런 신조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하나의 통일된 역어들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통일된 역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외래어 표기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말 역어가 없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음을 따서 차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의 통일된 표기 형태를 제시해야 같은 단어를 신문마다 방송사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방안은 한영사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그 대응어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문화 관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OED에는 kimchi로 등재되어 있는 '김치'가 「비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영사전들에서는 kimchi, kimchee, gimchi로, '태권도'가 tae gwon do, taegwondo, taekwondo, taekwondo와 같이 제시되는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은 저자가 주로 본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사전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핀 것처럼 반론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책 속에 논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너무 자주 나와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점도 있다. 그러나 개별 사전이 정보 제시 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든가, 역어 제시 순서에 원칙이 없다는 점, 내용상의 오류나 오타자, 일본 사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외래어 표기상의 혼란, 뒤떨어진 발음 표기 등의 지적은 우리 영한사전의 근본적인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사전 편찬자들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이다.



Namjoon Kang (IGSE Lecturer)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TESOL 전공
University of Leeds, TESOL 박사과정 수료
EBS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기획, 집필
숙대 YTESOL 전임강사

Production of Instructional Television and Video Materials

Why do we use video materials?

According to my knowledge, for more than 30 years EBS has produced TV and radio programmes that specifically focus on teaching languag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producing these language programmes is, similar to that of video materials, provision of authentic and comprehensible input that include visual clues for understanding input, a language model, and the resource for language activities in the language classroom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V programmes and video materials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video materials became bigger whe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was popularised and interpreted as a theory which emphasises learning language through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in the target language. It has been found that not many teachers in Korea are confident in their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herefore, their reliance on video and audio materials in their lesson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erms of providing learners with an authentic input. For this reason, many video and audio materials are designed and produced as accompanying materials for the main language textbooks. Many of them state that they are providing authentic input because native speakers and native-like speakers were recorded.

How do we use video material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se materials. Ellis (1998) defines effectiveness as simple achievements that can be attained from the lessons in which the material is used. Efficiency, as defined by Ellis (1998), is a more complicated issue since it assesses whether the programme meets the goal more effectively than an alternative programme. This term 'efficiency', therefore, will be adapted as the way programmes or textbooks

reflect current language learning pedagogy, with the assumption that materials which are devised based on these are more efficient than ones not reflecting them. That is, in order to have effective and efficient language learning we have to use language materials that are developed and designed reflecting curren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theories. In order to do this, we have t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current SLA theories and have to learn how to apply these theories into designing video and audio materials. However, according to my knowledge, many people may know about SLA theories but not many of them actually know how to apply these theories to real practice.

About what we do in this course

This course enables you to learn the following areas: thorough understanding of SLA theories and applying these into the real practice. Firstly, we will focus on reinforcing your understanding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in EFL context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in ESL. We will clearly distinguish which of these theories are appropriate for our Korean context. As Holliday(1994) argues, methodologies designed for one type of situation (i.e. Korean EFL) may not adapt easily to the English language education profession elsewhere. Secondly, we will do a lot of practice in applying these theories in designing video materials and CD-ROMs. In my belief, in order to do this we will need your enthusiastic participation, feeling keenly the necessity of designing these theory-reflected video materials for our own context.

This course can be divided into three sessions. In the first session, we study ESL/EFL theories and pull out some basic but important factors that could be used for evaluating video materials and television programmes and that are already produced and for designing new materials. In the second session, we evaluate and design children's programmes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that are pulled out from the first session. In this procedure, we have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language learners. The third session discusses the major features of adult's English video materials and television programmes. We distinguish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mediums and between children's and adult's characteristics as language learners. In this session, we examine various ways of designing activities and tasks for both of these mediums, in order to encourage effective and efficient language learning in context of Korean EFL.

References

- Ellis, R. (1998).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ve tasks.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217-23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iday, A. (1994). *Appropriate Methodology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TI(국제교사교육원) 통합

교사 연수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TTI(국제교사교육원)가 본교의 부설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TTI는 IGSE와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및 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소식지의 'TTI 소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월례 특강 및 강연

일시	종류	연사	주제
3월 11일	강연	이진영 과장 (쑥쑥닷컴)	영어교육 사이트 구축의 실제
3월 24일	특강	이보영 대표 (이보영 아카데미)	Roles of English Teachers in Korea
4월 15일	강연	이창수 교수 (한국디지털대학교)	동영상 자료의 제작 및 활용
4월 19일	특강	조원경 박사 (연세대학교)	How to Globalize Korean Culture



● 신임 교수 임용

Christopher Douloff 교수가 2005년 봄학기에 본교에 임용되었습니다.



Professional Activities

- Teacher Trainer, TTI International, 2002-2005
- EFL Instructor, Kyong-hwa Middle School, 1998-2002
- EFL Instructor, Jung-Ang Elementary School, 1996-1998
- Webmaster, KOTESOL, 2004-Present

Education

- Master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Australia
- Diploma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Capilano College, Canada
- Bachelor of Arts: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 교수 동정

정영국

- 활동: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전공연수 인솔 (2005년 1월 8일 - 1월 30일)
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15명)의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전공 연수를 인솔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퍼콜린즈 출판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 롱맨 출판사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 출판: Oxford 영영사전 번역
조미옥 박사와 함께 Oxford 영영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제 5판)에 수록된 모든 예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Yahoo Korea의 사전 코너(<http://kr.dic.yahoo.com/search/eng/>)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현숙

- 활동: 영어지도학과 해외전공연수 인솔 (2005년 2월 2일 - 17일)
영어지도학과 2학년(17명)과 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3명)의 하와이 대학 전공 연수를 인솔하였습니다.
- 논문: Chung, Hyun-Sook. (2004). English private instruction of the third- and fourth-year students in the primary school: Current situation and impac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155-187.
- 출판: Chung, Hyun-Sook. (Ed.). (2005). *ELT Classroom Research by Practicing Teachers 1*. Hankook Publishing Co.
- 강연: 영어 듣기 지도법 (2005년 1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김영우

- 활동: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총무이사
- 논문: 김영우 외. (2005). 영어교육 분야의 직업군 조사를 통한 진로정보 연구. *외국어교육*, 12(1), 217-246.
- 강연: 영어과 교재개발 및 워크시트의 개발 원리 (2005년 1월 28일, 전국영어교사모임)
- 강연: ICT for English Teachers (2005년 4월 2일, SMU- TESOL)

Daniel Thomas

- 강연: 중국 영어교사 연수 (2005년 2월)

Eric Prochaska

- 출판: Prochaska, E. (2005). *Reading for the Real World: Intro*. Compass Publishing.

Christopher Douloff

- 활동: KOTESOL 웹마스터

● 학생 학술 및 전문 활동



본교의 많은 학생들이 외부 학술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 한국응용언어학회 발표 (2004년 12월 4일)
 - 강지민, 박주현: Processing Sound Data
 - 문은경: The History of ELT in Korea
 - 신은정: Transferring a Listening Book to Web Content
 - 장부영: An English Zone for English Education Specialists
- ▶ 한국영어교육학회 발표 예정 (2005년 6월 24일)
 - 강지민: The Effect of Pronunciation Training on Korean Adult Learners'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 박주현: Qualitative Study on the Pronunciation Workshop in a Graduate School
 - 장부영: An English Zone for English Education Specialists: Interrelationship between Effects of Content Schemata on English Reading and English Proficiency
 - 김지현: Developing English Writing Materials f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 유현정: A Statistical Analysis of Academic Research on English Education in Korea
 - 이선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Learners' Perceived Importance of English Pronunciation and Their Listening Proficiency
- ▶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발표 예정 (2005년 8월 20일)
 - 이지애, 장효진, 진주: 고교 영어수업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활용 및 개발 워크숍

아울러 본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 ▶ 창업동아리 IGSE Challengers
 - 활동 참가자: 문은경, 양나나, 서경채, 박주현
 - 주요 활동: 영어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문헌 연구
- ▶ 어휘문법동아리 V●G
 - 활동참가자: 김신규, 양나나, 서경채, 이선아 김은하, 정영애, 박주현, 박경임, 강지민, 이윤선
 - 주요활동: 어휘, 문법 관련 연구서 강독

● 국제교사교육원 TTI 겨울방학 교원연수 실시

TTI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연수는 서울시 교육청 직무연수 223명과 온라인 자율연수 123명 등 총 346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연수에 참가한 모든 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학제원 방문 및 종강파티 (2005년 12월 17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대영어사의 연수원인 충북 영동에 있는 학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카세트 테이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새한음반을 방문하여 다양한 영어 자료의 개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학제원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미사리 근처 음식점에서 윤균 이사장, 문용 총장께서 함께 참석하신 종강파티를 치렀습니다. 한 학기의 고된 학업을 잘 마무리 짓고 IGSE의 단합과 열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대학발전기금' 계속 담지

본교를 작지만 금강석처럼 빛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1회 졸업식(2004.8.25)에서 문용 총장의 궤적으로 시작된 대학발전기금이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그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탁 및 약정 현황〉 2004. 8. 25~2005. 4. 25 현재

교직원 : 문 용(1,000), 정영국(100), 정현숙(100), 김영우(100), 남영이(64)*, 이수영(2)*, 박강호(24)*, 최정민(3)*, 김문재(2)*, 박영숙(3)*, 임미라(2)*, 이수정(1)*, 유수현(1)*, 박은영(1)*, 황신오(1)*
 동 문 : 이수진(100), 윤이정(30), 구자경(10), 박영미(10), 전명희(10), 강현중(5)
 재학생 : 유미선(2), 이지애(2), 장효진(2), 정성연(2), 정재은(2), 조혜진(2), 진주(2)
 외 부 : 권오량 서울대교수(30), 안현기 서울대교수(20)

총액 16,330,000원
 〈비고〉 *는 월정액 약정자임(단위:만원)

입학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Q. 영어교사 자격증도 TESOL 자격증도 수여되지 않는데, 석사 학위와 영어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어떤 곳인가요?

A. 영어지도학과와 영어지도학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일 말고도, 우수 학원이나 영어 교육과 관련있는 연구소와 영어교육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영어교재개발학과와 영어지도학과와 유사한 진로로 나가거나 출판사, 영어교육 온라인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영어교재 제작의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http://job.igse.ac.kr>)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먼저 1차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준비하고 2차 전형을 위해 한국어 및 영어면접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외에 전공관련 도서를 읽거나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을 준비하면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학부 성적이 중요한지요?

A. 2005년 입학전형의 서류심사 배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입시전형을 비추어 보면 학부 성적의 배점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Q. 1차 심사에 학업계획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나요? 재학 동안 개인적으로 공부할 커리큘럼을 말하는 건가요?

A. 학업계획서는 본교 입학 후 다양한 영어교육 분야 가운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한 계획과 학업을 마친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Q.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및 특기사항' 란이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경력이 영어교육과 관련이 없다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요?

A. 지원자의 다양한 경력 및 특기사항은, 영어교육과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위원의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2차 전형이 면접(영어면접 포함)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전공과목(영어교육)에 대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공과 관련된 심층질문은 없습니다.

Q. 입시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되어있는데 영어 인터뷰에서 몇 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지요?

A. 전체 인터뷰는 약 10~15분이며, 이 중에 일부가 영어면접입니다.

Q.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지요?

A. 영어를 듣고 영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심사합니다.

Q. 2005학년도 모집요강에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없는데, 2차 시험에서 토픽스 시험도 제외되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귀교에서 공부하려면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공도서를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읽어야 할 교재 목록이 있는지요?

A. 본교에서는 영어교육 비전공자들에게 전공 관련 도서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도서를 읽으시면 본교에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공통

신성철 외. (1999). *현대영어교육*. 문경출판사.

조명원 & 이흥수. (2004). *영어교육사전*.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영어지도학과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Longman.

Celce-Murcia, M. (Ed.).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본교 홈페이지 입학희망자 게시판에서 뽑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본교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einle & Heinle.

● 영어교재개발학과

Tomlinson, B. (Ed.) (2003).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 Continuum.

Nunan, D. & Swain, M.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gman.

Q. IGSE는 현직교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2년간 휴직할 가치가 있을까요?

A. 본교는 매주 10시간의 회화, 작문 수업을 포함하여 영어교육 전공 및 실습, 영어교재 제작 등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졸업 후에 영어교사로서 자신감과 향상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006년 2월에 졸업하는 사람은 2005년 8월에 입학할 자격이 됩니까?

A.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본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타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본교에 다니는 이중학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교사로 학업을 위해 2년간 휴직을 할 경우 이 휴직기간이 교직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는,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조에 의거하여 휴직이 인정되며 ②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조에 의거하여 평정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재직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다른 대학 박사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A.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원대학

교이므로 본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됩니다.

Q. 4학기 과정 중 과목 선택을 가능한 많이 하여 조기 졸업을 할 수도 있는지요

A. 매학기 수강해야 할 과목이 많아 어렵습니다.

Q. 졸업이수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A. 공통필수과목인 회화(주당 6시간), 작문(주당4시간) 24학점을 포함하여 63학점입니다.

Q.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를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주당 영어회화와 영작문 외에 몇 시간을 수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매학기 주당 10시간의 회화, 작문 수업 외에도 9~12시간의 전공과목(3~4과목)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회화, 작문 수업의 특성상 거의 매일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전공수업은 거의 매일 다른 날에 개설이 됩니다. 각 과목에 따른 과제와 발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학기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표를 보면 거의 매일 수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재학년한은 2년으로, 2년 이내에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IGSE 홈페이지 입학희망자 게시판

과목명	과목 설명	강사명	강사비	장학	총액
1410	교사 2차 1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4-15	2000	2000
1411	교사 2차 2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5-15	2000	2000
1412	교사 2차 3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6-15	2000	2000
1413	교사 2차 4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7-15	2000	2000
1414	교사 2차 5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8-15	2000	2000
1415	교사 2차 6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09-15	2000	2000
1416	교사 2차 7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10-15	2000	2000
1417	교사 2차 8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11-15	2000	2000
1418	교사 2차 9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6-12-15	2000	2000
1419	교사 2차 10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1-15	2000	2000
1420	교사 2차 11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2-15	2000	2000
1421	교사 2차 12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3-15	2000	2000
1422	교사 2차 13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4-15	2000	2000
1423	교사 2차 14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5-15	2000	2000
1424	교사 2차 15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6-15	2000	2000
1425	교사 2차 16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7-15	2000	2000
1426	교사 2차 17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8-15	2000	2000
1427	교사 2차 18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09-15	2000	2000
1428	교사 2차 19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10-15	2000	2000
1429	교사 2차 20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11-15	2000	2000
1430	교사 2차 21차 제1차원격 석사과정	한지희	2007-12-15	2000	2000

IGSE

영어를 잘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당신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어교재개발학과 전공 연수 (2005년 1월, 영국 리즈)

2005학년도 가을학기 전액 장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일반전형)

계열	학과	모집인원	비고
인문 사회 계열	영어지도학과 영어교재개발학과	석사과정 50명	전학기 전원 장학생

2. 특전 및 학위과정 특징

- (1) 전원에게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 지급
- (2) 재학 기간 중 해외 전공 연수 지원
- (3) 재학 시 성적이 뛰어나게 우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외 유명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 시 적극 지원 예정
- (4) 매학기 주당 10시간의 영어회화(3학점)와 영어작문(3학점) 수강

3. 지원자격

-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8월 취득 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4. 전형일정

- (1) 원서 접수 : 2005년 5월 23일(월) ~ 5월 28일(토) 17:00
 - (2) 1차 전형 발표 : 6월 9일(목)
 - (3) 2차 전형 (면접) : 6월 11일(토) ~ 6월 12일(일)
 - (4) 합격자 발표 : 6월 20일(월) 본교 홈페이지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문의 : www.igse.ac.kr / 입학 희망자 게시판
- 입학상담전화 : 080-804-0505(수신자 부담) 대표전화 : (02)6477-5114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